



# CHINA PHOTO SHOW

지난 6월 한달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사진영상 이미지산업쇼가 두 번이나 열렸다. '중국 국제 사진 전자 영상기기 & 테크놀로지 박람회'와 '중국 국제 사진 디지털테크놀로지 박람회'가 그것인데 Photofinishing News 라는 언론은 '중국 국제 사진전자 영상기기 & 테크놀로지 박람회'가 유일한 외국산업쇼기구가 될 것이라고 보도할 만큼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 내용은 Photo International 2001년 9월호에서 발췌·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비행기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아시아의 4곳에서 한달 새 각각 영상이미지산업쇼가 열렸다.

먼저 한국에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국제 사진·영상 기자대전(Seoul International Photo&Imaging Industry Show)'이 열렸고,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는 '라보시스템쇼(Lab Systems Show)'가 열렸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두 조직위원회로 분리된 쇼로 6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중국 국제 사진 전자 영상기기 & 테크놀로지 박람회(China International Photograph & Electrical Imaging Machinery and Technology Fair)'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중국 국제 사진 디지털테크놀로지 박람회(China International Photography and Digital Technology Fair)'가 같은 장소인 중국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렸다.

다음 내용들은 두 쇼에 모두 참석했던 몇 안되는 기자중 photofinishing News Letter의 돈 프렌츠(Don Franz)기자가 정리한 것이다.

원래 베이징에서 6월에 열렸던 국제적인 사진

무역쇼는 하나였다.

전시회 주최측인 중국기계공업연합과 Great Wall Corp의 두 관련기관의 협조가 있었지만 2001년 1월에 이 관계는 깨지고 각 그룹은 독자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중국기계공업연합은 중국 문화·사무기기전문협회가 되었다. 이 같은 결과로 많은 전시참가업체들과 특히 외국에서 온 바이어 및 일반 관람자들만 혼란스럽게 되었다.

## 중국 국제사진 영상기기&테크놀로지박람회(China International Photograph & Electrical Imaging Machinery and Technology Fair)

Photofinishing News는 '중국 국제사진영상기기 & 테크놀로지 박람회'가 유일한 외국산업쇼기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제사진영상기기 &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상하이에 자회사를 설



립한 올림피스를 비롯해 홍콩이나 중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는 외국업체인 119개 사가 참가했다. 이중에는 미니랩 생산업체(전부는 아니지만 미니랩 대부분이 상하이 부근에서 제조되는 반면 영업사무소들은 베이징에 설립됐다.)들과 필름 및 사진인화지 제조사(후지필름과 코니카 배급업체), 그리고 소수의 영상제조시스템 배급업자 등이 참가했다.

전시기간동안 통로의 반대편에 있던 삼성과 올림피스는 대대적인 홍보전을 통해 큰 소리로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다른 참가업체와 상담하기를 원하는 일부 방문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기도 했다.

**즉석 컬러 사진현상기 시장동향**

사진확대기를 제조하는 De Vere의 방침은 중국 Changshu에 있는 Chanshu De Vere사진기 기공장과의 합작으로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독일산 Mullersohn디지털 미니랩을 시연해 보였다.

Mr. Hu Jain Nan.이사에 의하면 이 회사가 중국에서 제조한 이 기계에 대한 판매상담은 이미 끝났다.

상하이 Douli(www.doli.com.cn)의 새로운 DL-2105/2106/2107 디지털 미니랩은 35mm네거티브에서 12×8인치 광학 프린터, 그리고 8×10인치 디지털 프린터(모델 DL2107, 수출가격 \$27,000 )를 가능하게 한 혼합시스템이다. 이 회사는 3달 안에 더 확장된 CRT프린터 엔진으로 10×12인치 디지털 프린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저 원가 시스템이 갖고있는 문제점은 여전히 용량의 한계가 있는 중국산 디지털 프린트 엔진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Douli사의 한 간부는 “서구산 수입 프린트 엔진에 그들의 시스템을 접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격

이 상향되더라도 더 확장된 디지털 프린트를 달성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미 수입한 CPU칩을 쓰고 있다. Douli는 최근 ISO9002 인증서를 획득했고 이 새로운 미니랩 시리즈는 독일 TUV안전인증자격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Douli사는 중국 외각에 65곳에 달하는 디지털 미니랩(현상소)을 운영중이다.

Douli의 미니랩은 듀얼 메거진(필름감는 틀)과 줌 렌즈를 장착했고 표준 RA-4chemistry(700+3R printer/hr) 또는 코니카의 고속 chemistry(1,100+3R printer/hr) 작동이 가능하다. 새로운 모델인 DL-2102 프린터 프로세서(\$15,000, 디지털 프린트 엔진은 제외)는 APS필름을 수용하고 120formats도 가능하다. 그리고 넓어진 모니터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 회사의 미니랩은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성능과 품질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August 1st 정밀기계는 오래된 디자인의 미니랩을 전시했다. 이 회사는 초창기인 1995년에 Copal과 합작 군수회사로 설립됐으나 두 회사가 분리된 이후부터 이 회사 제품의 디자인은 더 이상 발전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회사의 대리인은 Copal 과 다시 합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미니랩외에도 이 회사는 35mm영화 프로젝터와 메디컬 카메라 등을 포함하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상하이Sophia Electron Machinery Co., Ltd. (www.Sophiaminilab)는 올해 2월에 열렸던 미국 PMA에서도 전시된 바 있는 자체 수출용 브랜드모델과 아그파라는 브랜드로 미니랩을 전시했다. 이 회사의 수출은 500대를 넘어섰다. TainDa라는 브랜드로 미니랩을 만드는 상하이 Tian Ma Photography Equipment Co. Ltd.의 부스에는 PC없이 8×10인치 프린트

(Rmb 108,000, \$13,000)를 뽑아낼 수 있는 상당히 확장된 Tidings 디지털 포토 프린터가 전시됐다. 이 회사는 1985년 그들의 첫 번째 모델로부터 내려오는 아날로그 미니랩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까지 총 500개가 넘는 물량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또 다른 부스에는 새로운 디지털 미니랩인 'Tidings 디지털 포토 프린터 11'을 시연해 보이고 있었다. 이 제품은 400dpi해상도를 공급하고 U.S technology CRT 엔진을 탑재해 윈도우안에서 작동된다. 특히 인터넷을 끈 상태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한 입력을 수용하고 필름과 수평스캐너를 둘다 포함한다. 프린트 처리용량은 3R규격 300매/hr 또는 5R규격 200매/hr이고 사이즈는 최대 8×10. (소매가 Rmb 450,000, \$54,200)

chief 디자이너는 'Tidings 디지털 포토 프린터 11'이야말로 렉키칼라 네거티브 페이퍼로 디지털 이미지를 프린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계이고 CRT시스템의 유지비도 낮다고 극찬했다. 후지필름의 프론티어의 레이저 노출 시스템이 평균 수명 8,000시간에 교체비용이 \$355,000인 것에 비해 3년 동안 CRT시스템의 교체비용은 Rmb10,000이다. OEM협정으로 3월에 출시된 이래 5대가 팔렸다.(중국 4개, 인도네시아 1대) Tian Ma사는 이제 자체 브랜드명으로 판매에 확신을 가졌다.

다른 모델들은 최대 6×10인치에서 20×24인치로 출력되는데 반해, 새로운 TainDa TD2030 프로 아날로그 미니랩은 20×30인치, 3R규격 1,500매/hr로 출력된다. Tian Ma의 오래된 미니랩을 전시회장에서 바로 구매할 시에는 특별한 할인혜택을 주었다.

Te Ni Electronic Image Equipment Co. Ltd.회사는 베이징에 영업사무소가 있고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 4년된 회사로 디지털 미니랩보

다 아날로그 미니랩이 더 많다. 모든 중국인이 사진이 들어간 보안 ID카드가 필요하게 된 이후로 이 회사의 Tam 디지털 아이디 카드 기계가 활성화됐는데 미니랩에 혼합카드를 출력하기 전에 이미지가 잡혀지고 정보가 잡힌다.

중국 국제 사진 전자영상기기&테크놀로지 박람회에서 소니 필름현상 시스템으로 자체 프린터를 소개한 소니는 디지털 미디어와 필름으로부터 프린트를 얻기 위한 새로운 셀프-서비스 테이블 탑(table-top)시스템을 시연해 보였다. 이 프린터는 6×8인치 또는 6×10인치로 출력한다.

메모리стик 기능이 있고 FD와 CD입력이 가능하며 5×7인치를 출력(6×8 또는 6×10인치 예정옵션)할뿐아니라 인터넷 다운로드를 수용하는 TY22/2301시스템은 가격이 \$8,000이었다.

또한 비디오로부터 프린트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는 2303/2305시스템은 \$10,500이었다.

### 중국 카메라시장 동향

이 포토 쇼에서는 무엇보다 카메라가 돋보였다. 올해 초 모임연설에서 Federation기계공업사의 부사장인 Mr.Xue De Lin은 "중국에는 완제품카메라를 생산하는 회사가 40여 곳이 있으며 다른 1,000여 곳의 부품 공급업자들로부터 후원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카메라의 연간 생산량은 110백만 대를 웃돌고 있다. 세관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수출이 1,405백만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수입은 654백만 달러였고, 내수판매는 11백만 대 정도였다.

생산과 국내 소비치는 Photofinishing News와 worldwide(77백만대), 중국(4백만대)이 추측한 것보다 훨씬 넘어섰다.

상하이 Seagull 카메라 Co. Ltd.의 총지배인인 Mr.Liu Li Xi는 다른 연설에서 그의 회사는



1958년에 설립됐고 2000년도 카메라 연간생산량은 대략 2백만 대, 판매액은 Rmb 13.8억, 수출 11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6MB 디지털 영상 파일을 생산했던 상하이 Chaoyi 디지털 과학기술개발.Ltd(www.chaoyi-tech.com)사의 인물 사진촬영소에서 미디엄포맷 카메라 백이 선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대중포맷을 저장할 수 있다. Super Digital Technology란 이름으로 판매가 되었는데 케이블연결기와 배경합성, 텍스트, 그래픽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Rmb180,000(\$21,700)이었다.

이 카메라 백의 개발책임자인 Mr. Shen Wei Cheng은 “아직 시장장악을 하진 못했지만 중국에 미디엄 포맷 디지털 카메라 백을 쓰고 있는 사진촬영스튜디오는 2,000여 곳이 넘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진귀한 제품중 하나는 베이징 스톤 투자 Co.사에 의해 수입된 Roland의 MPX-50 Metaza Metal Printer이다.

이 프린터는 Rmb 21,500(\$2,600)에 팔렸고 PC 내 윈도우즈 상에서 작동되며 15mm/sec에서 컷된다. CD, 프린트의 수평스캔(또는 네거티브)과 디지털 카메라에서 영상을 수용하고 80mm×80mm 크기로 프린트한다.

3차원 개체를 90mm×90mm×20mm(3.5×3.5×0.75인치)까지 인쇄할 수도 있고 물체의 광범위한 범위를 인쇄할 수 있다.

### 중국 국제 사진 디지털테크놀로지 박람회(China International Photography and Digital Technology Fair)

photofinishing News Letter의 돈 프렌츠(Don Franz)기자에 의하면 중국국제사진디지

털테크놀로지박람회에 참가한 전시업체들은 대부분 필름현상업체 출신인 부품공급업체들이었다. 어쨌든 중국 각각의 전시 주최측간의 대립의 결과는 명백하게 나타났다. 두 전시회는 조직적이지 못했고 전시업체들도 적었으며 참관자들도 수준도 낮았다.

협회에 많은 결점이 있었을지라도 중국 국제 사진디지털테크놀로지 박람회는 중국에서 열린 최초의 사진과 디지털 무역전시회였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디지털영상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산업화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열린 가장 큰 사진영상 무역전시회는 각기 다른 주최측이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진 경쟁적인 전시회로 분리되었다. 이는 실로 각 전시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전시업체들 대부분은 전시회에 모두 참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유와 비용을 가지지 못했다. 또한 주최측에 의한 광고와 섭외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성과도 적었으며 참관자들도 적었다.

예를 들면 일본 대표단은 당초 큰 전시회와 웅장하게 장식된 부스를 주최하기로 계획했었으나 막판에 대신 참관여행단만 보내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한달 안에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전시회를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거나 이 전시회를 통한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시회에는 많은 디지털 영상 솔루션이 전시됐다.

시장조사와 과학기술증진에 힘쓴 공급업체들은 시장수요와 유효수량이 맞을 수 있는 좀더 진보된 제품/솔루션을 전시했다.

전시회에는 앞선 설비의 세 개의 브랜드가 있었는데 다양한 콤포넌트로부터 중국자체시스템으로 접목하는 연구보다는 이 세 가지 전문시스

템은 하드웨어 비용절감에 대단히 흥미가 있었다.

Sony(www.sony.com)는 판매가격 Rmb 98,000인 스캐닝, digitizing, 전송시스템 등을 전시했다. 이용자가 없던 중국에 잠재력 있는 소비자들이 최근에 소니 배급업체에 주문하기 시작했다. 소니는 또한 프린트 시스템인 '셀프서비스 테이블 탑 디지털 파일/필름'을 시연해 보였다.

디지털 Now(www.digitalnow.com)사의 Digital Photo Factory(DPF)는 35mm스캐너, 5,000 frames/hr 기능이 있다. 전송을 위해 디지털 파일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CD와 인덱스프린트를 만든다. 판매가는 Rmb 98,000이다. 최근에 DPF는 개발단계로 중국에 소프트웨어를 내놓지 않았다.

Polaroid(www.polaroid.com)사는 35mm, 35mm/6×4.5/6×9, 35mm/4×5인치의 세가지 형태의 스캐너 시스템을 전시했다. 35mm필름 스캐너는 한번에 6 프레임만 스캔하지만 4000dpi의 해상도를 지녔고 Rmb 30,000-40,000선에 판매 됐다. 이 시스템은 CD는 제작하지 않는다.

## 짧막뉴스

### 데이통콤, ERP시스템 구축

데이통콤(대표·주진용)은 디지털복사기는 물론, 유·무선 발신자 번호표시(CID) 전화기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 본격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데이통콤 측은 "생산·인사급여·영업관리·생산관리 등 경영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판매정보 및 손익정보 등의 분석으로 마케팅 극대화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ERP 시스템은 국내 사무기기업체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구축된 것"이라며 "이 같은 체계적인 전사적 관리의 현대 기업경영에 필수적이기에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RP 시스템은 비즈아이코리아의 'Winerp' 프로그램으로 구축됐으며, 데이통콤은 내년 초까지 전국 대리점 네트워크와 함께 고객관리를 위한 2단계 ERP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